

中國傳統文學 危機의 原因과 現況

金世煥*

<目次>

- | | |
|---------------------|----------------------------|
| I. 序言(왜 「傳統」을 찾는가?) | III. 危機의 現況 |
| II. 危機의 原因 | 1. 創作 없는 研究中心의 新文學 |
| 1. 新文學運動의 傳統文學 否定 | 2. 中國文學의 西洋化 理論 |
| 2. 日本 學術用語 誤用의 影響 | IV. 結語(傳統文學의 斷絶과 奇形의 文學研究) |
| 3. 日本 中國文學史의 逆輸入 | |

I. 序言 (왜 「傳統」을 찾는가?)

대량의 外來文化가 유입되면 自國의 문화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면서 문화적 충돌이 야기된다. 대체로 자국의 문화유산에 도전하는 외래문화는 배척되기 마련이지만, 外勢의 힘이 크면 오히려 자국의 문화가 밀리거나 배척된다.

韓國이나 中國 등은 西勢의 東進에 따라 부득이 門戶를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끊임없는 문화적 충돌을 겪었다. 예로, 처음에 서양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매우 심각한 충돌을 겪어야 했다.

사대부 집안의 木主는 天主教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天主에게 죄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의

* 부산대학교 중문과 교수

뜰을 파서 神主를 묻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중략)

어찌 감히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오리까? 상여 줄을 잡는 예와 4척의 높이로 봉분을 돋는 것은 풍속을 따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5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8월 그믐에야 기한을 넘겨 장사를 지낸 것은 집안에 전염병이 돌아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¹⁾

朝鮮時代의 尹持忠(1759~1791)은 邪學에 빠져 神主를 불태우고 祭禮를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시신까지 제때에 장사를 지내지 않고 버렸다는 혐의로 잡혀와 심문을 받았다. 그는 神主와 祭禮는 天主教에서 금지하는 것이어서 스스로 폐했음을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잡혀온 尹持忠의 외사촌 權尙然(1751~1791)도 제례를 폐하였음을 실토했다. 洪樂安(1752~?)은 좌의정 蔡濟恭(1720~1799)에게 편지를 보내 이들의 斷罪를 요구하였다.

옳게 바꿀 수 없는 것이 綱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이 예의로서 나라를 세운 지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매우 패악하고 크게 무도한 자가 있다 해도 부모가 살았을 때는 섬기고 죽으면 장사지내는 예를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 시골 천민들의 무지한 망동의 행태 속에서 나타나도 동네에서 그것을 배척하거나 수령이 징계하여 한 치도 이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오직 저 持忠의 무리들이 감히 오랑캐와 금수를 따르면서 스스로를 소귀신과 뱀 귀신에 빙자하여 제사를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초상을 당하더라도 魂帛을 세우지 않고 부모가 죽어도 조문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 조상의 신주를 불태워 묻기까지 합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가서 조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기를 “축하할 일이지 위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 통탄할 일입니다. 천지가 생긴 이래 어찌 이런 변괴가 있을 수 있습니까?²⁾

1)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15年11月戊寅(7日)》(서울: 國史編纂委員會, 檀紀 4291年), 257쪽. 필자 번역.

2) 같은 책, 253쪽.

綱常의 윤리는 국법의 근거였으며 아울러 국가와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일차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고 다음으로는 점차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을 것이다. 조상의 神主를 훼손하는 행위는 綱常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곧 弑逆과도 다를 것이 없는 悖倫인 것이었다. 그러나 尹持忠과 權尙然 두 사람의 신념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刑場에서 “神主에 절하고 天主를 배반하라”는 형 집행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형을 받았다.

三綱五常의 윤리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이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할 만큼 토착화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천주교의 전래는 전통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이미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불가피한 문화의 충돌이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는 神主와 天主가 同床異夢으로 공존하고 있다. 아직도 명절에 茶禮를 지내거나 조상의 忌日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는 하지만, 서양의 종교를 이유로 이러한 전통 의식을 배척하는 부류도 있다. 이제는 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天主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그 뿌리가 다른 이 두 종류의 文化는 2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中東의 전쟁과 같은 충돌을 피하면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 온 것이다.³⁾

西勢의 東進은 學問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쳤다. 政治學이나 法學 그리고 醫學이나 自然科學 등의 서양학문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학문의 서양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갔다. 이들 학문은 中國에 없는 것이거나 또는 의학이나 자연과학은 객관화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충돌 없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移植作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학과 같은 분야는 이미 수천 년의 고유한 전통이 있었으며,

3) 金世煥 著, 《끝나지 않는 식민지 학문 100년》(서울: 박이정, 2004.11), 191-197쪽 참조.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나라의 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속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家庭儀禮가 천주교의 의식과 병행될 수 없듯이, 전통의 문학도 외래의 그것과 융화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中國은 儒家思想까지도 문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서양에서의 천주교와 다를 것 없는 정신문화를 주도해온 것이며, 다른 민족의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문학의 서양화는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전통문학을 밀어내지 않으면 문학의 서양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中國은 新文學運動을 통하여 전통문학을 배척하고, 그 자리에 소위 신문학을 이식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전통문학은 사실상 단절의 위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학을 모두 밀어내고 서양의 그것으로 문학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전통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에서조차 전통의학의 합리성이나 과학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그 민족의 독특한 체질과 생활환경으로부터 자생한 전통의학은 일종의 맞춤형학과도 같은 효능을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통을 찾는 것은 문화나 학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이다. 전통과 이어지지 않는 문학은 사실상 그 생명의 원천을 상실한 것이다.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의 연구는 창작과 같은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명이 없는 공허한 관념의 논쟁에 국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통과 창작은 문학의 원천이며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전통과 창작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대학은 문학의 현장과 遊離된 채로, 의미 없는 空念佛을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학의 단절은 곧 수천 년 문학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문학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문학이 왜 이러한 위기에 와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 아울러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잃어가는 역사를 되찾고 아울러 문학 연구처럼 기형적인 학문 연구의 풍토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긴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危機의 原因

1. 新文學運動의 傳統文學 否定

中國傳統文學의 위기는 서양 학문의 유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日本이나 美國 등지에서 서양의 문화를 접한 학자들이 전통문학을 배척하면서 밀어낸 자리에 서양의 문학을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15년 일본에서 돌아온 陳獨秀(1879~1942)는 9월에 《新青年》이라는 잡지(제1권의 原名은 《青年雜誌》였음)를 창간하여 新文化運動을 제창하였다. 이에 함께 하는 젊은 지식인들은 사상의 혁신을 통하여 중국사회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孔孟의 사상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혁명의 발전은 결국 문학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상은 글에 담겨 전해오는 것인데 古文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상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화운동은 이렇게 전통문화의 강한 否定과 배척을 바탕으로 하면서 新文學運動으로 이어졌다.⁴⁾

美國에서 유학하고 있던 胡適(1891~1962)이 1917년 1월호의 《新青年》잡지에 발표한 <文學改良芻議>는 신문학운동의 第一聲으로 꼽힌다. 그는 문학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進化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白話文學이 中國文學의 正宗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창작에서 유의

4) 黃修己 著, 《中國現代文學發展史》(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8.11), 18-21쪽.

해야 할 소위 ‘文學改良’의 8가지 大原則을 제시하였다.⁵⁾ 이들 원칙은 대체로 전통문학에 대한 반발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의 《白話文學史》는 전통문학을 아예 死文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러한 死文의 시작을 漢武帝 때쯤으로 보았다. 國語의 문학은 그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자신들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립되었다는 것이다.⁶⁾ 그는 口語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나 일반 백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은 모두 死文으로 규정하였다. 때문에 전통문학의 대부분을 그는 중국문학의 발전을 저해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같은 해 《新青年》의 2월호에 陳獨秀는 <文學革命論>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글을 발표하여 胡適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는 아예 文學革命軍이라는 旗幟를 걸고, 세 가지로 요약되는 혁명군의 三大主義를 제창하였다. 첫째 彫琢으로 아첨하는 귀족문학을 뒤엎고 평이하고 抒情的인 國民文學을 건설하고, 둘째로는 진부한 수식의 古典文學을 뒤엎고 신선하고 진실된 寫實文學을 세우며, 셋째로는 애매하고 어려운 山林文學을 뒤엎고 명료하고 통속적인 社會文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⁷⁾ 그의 이러한 혁명론에는 서양 문학에 대한 막연한 崇仰이 배어 있었다.

우리나라 문학계의 뛰어난 인물들 가운데에 과연 중국의 위고·졸라·피테·호프만·디킨스·와일드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고루한 선비들의 평판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十八妖魔에게 맞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420미리 대포를 끌고 선봉에 나서리라.⁸⁾

5) “一曰, 須言之有物. 二曰, 不摹仿古人. 三曰, 須講求文法. 四曰, 不作無病之呻吟. 五曰, 務去爛調套語. 六曰, 不用典. 七曰, 不講對仗. 八曰, 不避俗字俗語.” 胡適著, <文學改良芻議>, 《文學運動史料選》1(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79.5), 12쪽.

6) 胡適 撰, 《白話文學史》(第一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12), 6-10쪽.

7) 陳獨秀, <文學革命論>, 《文學運動史料選》1(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79.5), 22쪽.

8) “吾國文學界豪傑之士, 有自負爲中國之虞哥左啦桂特赫卜特曼狄鏗士王爾德者乎.

그는 中國의 전통문학에 훌륭한 작가나 작품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서양문학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드러냈다. 그의 전통에 대한 반발심은 전통문학가들을 아예 ‘十八妖魔’로 비유하고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젊은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어졌다. 유학을 마치고 北京大學의 교수로 있던 錢玄同(1887~1939)의 <寄陳獨秀>가 《新青年》 3월호에 실렸으며⁹⁾, 역시 北京大學 교수인 劉半農(1891~1934)이 쓴 長文의 <我之文學改良觀>이 5월호에 실렸다.¹⁰⁾ 모두가 胡適이 先唱한 ‘文學改良’에 적극 동참하거나 이를 더욱 확대시켜가는 ‘改良論’ 또는 ‘革命論’이었다.

劉半農 같이 이미 교수직에 있는 사람도 프랑스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아 오듯이, 중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日本이나 서양에 유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유럽문학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갈수록 깊어졌다. 가령 <文學改良芻議>로부터 20여 년이나 지난 1939년 11월호의 《文藝戰線》에서도 何其芳(1912~1977)은 노골적으로 중국문학에 대한 열등의식을 드러내었다.

나는 유럽의 문학이 중국의 舊文學과 민간문학에 비해 진보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新文學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주로 이러한 비교적 건강하고 비교적 신선하며 비교적 풍부한 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¹¹⁾

예를 들어, 지금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新詩 즉 自由詩의 형식은 겨우 20년 짧은 역사이지만, 唐詩보다는 훨씬 진보된 형식이며 아울러 全世界

有不顧迂儒之毀譽，明目張膽以與十八妖魔宣戰者乎。與願拖四十二生的大炮，爲之前驅。” 같은 책 25쪽.

9) 같은 책, 26-32쪽.

10) 같은 책, 33-46쪽.

11) 我認爲歐洲的文學比較中國的舊文學和民間文學進步，因此新文學的繼續生長仍然主要地應該吸收這種比較健康，比較新鮮，比較豐富的養分。何其芳，〈論文學上的民族形式〉，《文學運動史料選第》4，407쪽.

界의 詩가 도달한 가장 고급의 형식이라는 것이다.¹²⁾

서양의 문화에 깊이 매료된 젊은 지식인들이 신문학운동을 통하여 중국 전통문학을 내몰고 그 자리에 서양문학을 모방하고자 한 것이다. 전통문학은 이로부터 급속도로 단절되면서 문학의 서양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다.

2. 日本 學術用語 誤用의 影響

서양문학의 유입은 日本의 번역작업을 거치면서 한층 더 용이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中國의 서양 모방은 사실상 日本을 거치는 2차 모방이 많았던 것이다.

日本은 서양의 대학을 모방한 東京大學을 1877년에 세웠다. 中國의 北京大學은 1912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의 前身인 京師大學堂도 1898년에 세워졌다. 東京大學은 中國보다 최소 20년 이상 앞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대학을 세운 것이다. 때문에 日本이 漢字의 宗主國인 中國에 앞서 서양의 학술용어를 먼저 漢字로 번역을 하거나 造語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의 과정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학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가령 「哲學」이란 용어는 日本人들이 造語한 것으로 中國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이다. 이 용어는 곧 「文學」의 의미를 축소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田中美知太郎의 《哲學初歩》에 의하면, 明治 3년(1870)에 창립된 育英舍에서 西周(1829~1897)라는 사람이 洋學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가 최초로 「哲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philosophy'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했다 한다. 이 후 東京大學이 창립 당시 學科名에 哲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明治 14년(1881) 東京大學은 《哲學字彙》를 발행하였다. 이 철학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철학용어의 대부분 또한 西周의 造語인데, 가령 오

12) 같은 책, 408쪽.

늘날 보통 사용하는 말들, 즉 論理學, 心理學, 倫理學, 美學 등의 학문 명칭으로부터 現象, 客觀, 主觀, 先天, 後天, 觀念, 實在, 歸納, 演繹, 總合, 分解(分析) 등의 많은 術語가 그의 造語라 하였다.¹³⁾ 바로 이 《哲學字彙》에서 ‘literature’라는 표제어는 「文學」으로 번역되어 있다.¹⁴⁾

「哲學」이라는 용어의 조어와, ‘literature’를 「文學」으로 번역한 것은 전통학문과 서양학문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아울러 용어의 의미와 범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우선 「哲學」이란 용어를 보면, 이 용어는 지칭하는 학문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文學의 대상은 ‘文’일 것이며, 法學의 대상은 ‘法’이다. 「哲學」의 대상은 ‘哲’이 되어야 하는데, ‘哲’이 지시하는 내용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다. 田中氏는 이러한 반쪽의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¹⁵⁾ 때문에 「哲學」은 현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매우 부정확한 뜻으로 많이 쓰인다. 「哲學」은 본시 ‘philosophy’라는 서양의 학문을 지칭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東洋哲學」 또는 「韓國哲學」으로도 쓰인다. 동양 ‘philosophy’ 또는 한국 ‘philosophy’가 가능한 경우는 오직 하나다. 즉 한국에서 ‘philosophy’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내용을 韓國의 철학 또는 줄여서 韓國哲學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性理學을 두고 한국철학이라고 하거나 中國의 儒學을 가리켜 중국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양의 ‘philosophy’에서 儒學과 유사한 史料를 찾아내서 이를 儒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그 태생에서부터 전혀 관련이 없는 학문이다. 「哲學」에서 ‘哲’의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다.

이로 인한 혼란은 이제는 수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馮友蘭(1895~1990)은 1918년 北京大學 철학과를 졸업하고, 1923년 美國의 콜럼비아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中國의 哲學史를 쓰기 시작

13) 田中美知太郎 著, 《哲學初步》(東京: 岩波書店, 1950.9), 1-6쪽.

14) 中島力造 外 共著, 《哲學字彙》(東京: 丸善株式會社, 1912), 87쪽.

15) 《哲學初步》, 1-2쪽.

하여 1931년에 第一篇 子學時代를 출판하고, 다시 1934년에 第二篇 經學時代를 저술하여 《中國哲學史》를 완간하였다.¹⁶⁾ 이는 지금까지 소위 中國의 대표적인 ‘哲學通史’로 여겨져 왔다.

그의 이 책 緒論은 이렇게 시작된다.

哲學은 본시 서양의 명사다. 지금 中國哲學史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일 중의 하나는, 中國歷史上 각종 학문 중에서 西洋의 哲學이라 이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選別하여 서술하는 것이다.¹⁷⁾

그는 ‘中國歷史上 각종 학문 중에서 서양의 ‘philosophy’라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려 뽑아 약 1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中國人 중에서 美國人의 혈통을 찾으면서 中國人의 인체구조가 美國人을 닮았기 때문에 中國의 美國人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中國의 철학이 知識論이나 論理學 또는 宇宙論 등에서 모두 취약하다는 탄식을 했다.¹⁸⁾ 서양 학문을 기준으로 中國의 학문을 裁斷하면서 기형적인 학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文學」에서도 똑 같다. ‘literature’에 대응하는 譯語를 「文學」으로 선정한 이후, 「文學」의 의미를 서구의 ‘literature’에서 찾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본래 「文學」과 ‘literature’는 전혀 관련이 없이 만들어진 용어이다. 의미상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신문학운동 학자들이 「文學」을 ‘literature’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文學」과 「文章」의 뜻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가령, 劉勰(?~520)의 《文心雕龍》은 文學論인가 아니면 文章論인가?

16) 馮友蘭, 《馮友蘭選集》上(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7), 作者簡介 및 156쪽.

17) 哲學本一西洋名詞. 今欲講中國哲學史, 其主要工作之一, 卽就中國歷史上各種學問中, 將其可以西洋所謂哲學名之者, 選出而敘述之. 같은 책, 5쪽.

18) 같은 책, 9-11쪽.

劉大杰의 《中國文學發展史》을 비롯하여¹⁹⁾ 대부분 이를 文學論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文心雕龍》에는 이러한 뜻에서의 「文學」이라는 용어의 用例는 보이지 않으며²⁰⁾, 오직 「文章」이란 용어가 25곳에서 보인다. 《文心雕龍》은 이렇듯 「文學」이 아닌 「文章」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의 저술동기 및 목적은 <序志>편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

唯文章之用, 實經典枝條, 五禮資之以成, 六典因之致用, 君臣所以炳煥, 軍國所以昭明, 詳其本源, 莫非經典. 而去聖久遠, 文體解散, 辭人愛奇, 言貴浮詭, 飾羽尚畫, 文繡鞶帨, 離本彌甚, 將遂訛濫. 蓋周書論辭, 貴乎體要; 尼父陳訓, 惡乎異端; 辭訓之異, 宜體於要. 於是搦筆和墨, 乃始論文.²¹⁾

(문장의 기능으로 말하면 실로 경전의 枝葉이라 할 수 있으니, 五禮가 문장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六典이 이로 해서 쓰이며, 군신이 그로 밝혀지고, 軍政이 또한 이로 밝아지나, 그 本源을 추구해 보면 經典으로부터 비롯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성인의 시대로부터는 이미 멀어졌고, 문체는 흐트러져, 문인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니 말은 막연한 靨변을 중히 하면서 마치 깃털에 그림을 그리고, 떠나 수건에 (필요 없는) 문양을 수놓는 것처럼, 근본으로부터 멀어져 결국은 오류의 범람으로 이어진 것이다. 무릇 尙書에서 다루어진 文辭는 간결한 것을 귀히 하였고, 孔子의 가르침은 異端을 싫어하였으니, (尙書의) 文辭나 (孔子의) 가르침의 차이는 마땅히 그 요지를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붓을 들고 먹을 갈아 文(章)을 논하게 되었다.)

劉勰은 文章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는 특히 經典을 문장의 本源으로 보고, 문장의 作法과 修辭 모두가 경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宗經을 주

19)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上(홍콩: 學林有限公司, 1978.1), 301-312쪽.

20) 세 곳에서 文學이라는 어휘가 보이지만, <頌讚>의 「文學」은 崔瑗의 《南陽文學官志》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관련이 없으며, <時序>에서 보이는 「唯齊楚兩國, 頗有文學」나 「文學蓬轉」은 대체로 학문적 분위기나 그 기풍을 의미한 것으로 역시 우리가 말하는 「文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劉勰, 《文心雕龍注》(臺北: 宏業書局, 1975.2), 157쪽. 671쪽. 673쪽.

21) 같은 책, 726쪽.

장한 것이다. 또한 당시의 문인들이 화려한 것을 숭상하면서 문장의 근본으로부터 멀어져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문장론을 펼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文學」은 대체로 이러한 「文章」을 의미하는 것이다.

「文學」은 이러한 「文章」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는 용어다. 그 初期用例는 《論語》에서 보인다.

德行;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 言語; 宰我, 子貢. 政事; 冉有, 季路.
文學; 子游, 子夏.<先進>²²⁾

(德行에는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이었고, 言語는 宰我, 子貢이었으며, 政事에는 冉有, 季路였고, 文學은 子游, 子夏였다.)

宋代 邢昺(932~1010)은 ‘德行’, ‘言語’, ‘政事’, ‘文學’을 四科라 하면서, 孔子가 72제자 중 이 四科의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거명한 것으로 보았다. 그 중 ‘文學’에 뛰어난 제자로 子游와 子夏를 꼽았다고 본 것이다. 이 ‘文學’을 邢昺은 ‘文章博學’으로 해석을 했다.²³⁾

그로부터 100여 년 후 朱子(1130~1200)는 이를 《詩》, 《書》, 《禮》, 《樂》 등의 經書를 익히는 것으로 풀이하였다.²⁴⁾ 이것은 곧 문학이 經學을 포함하는 學問의 뜻으로 쓰였음을 의미한다. 《周易》의 <文言·乾>에서 보이는 “君子學以聚之, 問以辯之(君子는 배움으로써 德을 쌓고, 물음으로써 의혹을 푼다)”²⁵⁾하는 것을 「學問」의 語源으로 본다면, 학문은 곧 문학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별개로 쓰였지만, 후에 ‘學’과 ‘問’이 「學問」이라는 복합어로 되어 文學과 유사한 뜻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十三經注疏·論語注疏》(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160쪽.

23) 邢昺 疏, “文章博學, 則有子游子夏二人也.” 같은 책, 160쪽.

24) 文學者, 學於詩書禮樂之文, 而能言其意者也. 《經書》(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2), 266쪽.

25) 《十三經注疏·周易正義》, 26쪽.

人之於文學也, 猶玉之於琢磨也. 詩曰, ‘如切如磋, 如琢如磨’, 謂學問也. 和之璧, 井里之厥也, 玉人琢之, 爲天子寶. 子贛季路, 故鄙人也, 被文學, 服禮義, 爲天下列士.²⁶⁾

(사람에게 있어 문학이란 마치 옥을 갈고 다듬는 것과 같다. 시에서 이르되, ‘자르듯, 깎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 이를 일러 학문이라 한다. 和氏璧은 시골의 돌이었으나 玉人이 이를 갈아 천하의 보배가 되었다. 子贛과 季路는 시골사람이었으나 문학을 닦고 예의를 배워 천하의 列士가 되었다.)

즉 문학과 학문은 모두 사람의 됄됨이를 갈고 다듬는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문은 그 字意에서 나타나듯 문학을 하는 방법론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음이 다소 다르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배움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文學」의 기본정신을 의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新文學運動에서 사용된 「文學」은 사실상 「文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文學」과 「文章」의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논리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현재도 「文學」과 「文章」을 혼동하며 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文學」의 상당부분이 「哲學」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文學」의 범위가 또한 크게 좁아져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3. 日本 中國文學史의 逆輸入

日本人에 의해 조어진 「哲學」이나 誤用된 「文學」은 그대로 中國에 逆輸入되었다. 그러나 학문의 역수입은 이에 그치지 않고 中國의 문학까지도 日本人에 의해 재편성되었다. 《中國哲學史》는 서양 학문의 視覺으로 中國의 학문을 서술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시각에서 中國文學史를 기술한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의 시도는 日本人들에 의해

26) 《諸子集成·荀子集解》3(河北: 河北人民, 1992.4), 334쪽.

서 이루어졌다.

日本에서 日語로 쓰인 두 권의 《支那文學史》는 중국문학의 현대적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 하나는 古城貞吉이 明治 30년(서기 1897년) 5월 발행한 것이고²⁷⁾, 다른 하나는 이보다 일 년 늦게 笹川種郎에 의해 明治 31년 8월에 발행되었다²⁸⁾. 두 권은 각 朝代에 따라 자료를 原文으로 소개하면서 비교적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전통적인 文論이나 詩話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서양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다.

古城貞吉의 《支那文學史》는 중국문학사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고 보인다. 그는 전체를 9編으로 구성하였는데, 支那文學의 起源, 諸子時代, 漢代の文學, 六朝의文學, 唐朝의文學, 宋朝의文學, 金元間의文學, 明代의文學, 그리고 清朝의文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每編의 第一章은 總論으로 그 編의 시대적 배경과 문학 전반을 개괄하였다. 약 6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방대한 저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그 후로 문학사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0年代 初에 발표한 鄭振鐸의 글에 의하면, 당시 中國 사람에게 의해 쓰인 中國文學史가 日本人의 중국문학사를 번역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했다 하였다.²⁹⁾ 이렇게 시작된 중국문학사의 서술 방식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다.

笹川種郎의 책은 앞의 책보다 다소 적은 편이지만 전체의 구성은 비슷하다 하겠다. 이외에 서양인이 쓴 문학사도 있었다. 1901년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Giles, Herbert Allen(1845~1935)의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가 그것이다³⁰⁾. 저자는 英國 케임브리지(Cambridge)

27) 古城貞吉 著, 《支那文學史》(合資會社 富山房, 明治三十.5)

28) 笹川種郎 著, 《支那文學史》(博文館, 明治三十一.8). 참고로 저자의 '笹'字는 日本의 造字로 中國에는 없는 글자임.

29) 鄭振鐸 著, 《中國文學論集》下(홍콩: 港青出版社, 1979.8), 398쪽.

30) Herbert A. Giles 著,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London: D.Appleton and Company, 1901)

대학의 中國語·文化 學者였는데, 序文에서 저자는 이 책이 곧 中國語를 포함한 모든 언어에서 중국문학사를 기술하는 첫 번째의 시도라 하였다.³¹⁾ 그는 日本人이 日本에서 日語로 저술한 두 권의 문학사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英文版은 일체의 原文이 없이, 약간의 작품이나 자료를 영어의 번역이나 설명으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中國文學史의 저술은 中國人들에게 큰 영향과 함께 경각심을 주었다. 古城貞吉의 책은 王燦에 의해 《中國五千年文學史》로 번역 출판되었다. 鄭振鐸(1898~1958)은 Giles의 저술에 대해 내용이 빈약하고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英文은 고사하고 완비된 中國語의 中國文學史 하나 없음을 개탄하였다.³²⁾ 이로부터 中國人들의 중국문학사 집필이 이어졌고, 鄭振鐸 본인도 중국문학 관련의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이는 곧 중국문학 연구의 역수입 현상이었으며, 전통문학과는 전혀 다른 연구 방식이었다.

馮友蘭의 《中國哲學史》가 “中國歷史上 각종 학문 중에서 西洋의 哲學(philosophy)이라 이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면, 《中國文學史》는 「中國歷史上 각종 학문 중에서 西洋의 ‘literature’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 概說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전통문학 자료의 임의적인 나열과 서술에 불과한 것으로 전통문학과 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31) ‘This is the first attempt made in any language, including Chinese, to produce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같은 책, 序文.

32) 鄭振鐸은 1922년 쯤 발표한 <我的一個要求>라는 글에서 당시 변변한 중국문학사 하나 없음을 탄식하였다. 영문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내에도 日本을 모방하여 편집한 몇 권이 있을 뿐이니 실제로는 한 권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앞의 책, 396-399쪽.

III. 危機의 現況

1. 創作없는 研究中心의 新文學

신문학운동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전통문학의 형식을 타파하고 대신 쉽고 자유스러운 형식의 창작을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중국문학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의 전통 형식의 타파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1917년 일 년 내내 신문학운동 관련 문장을 게재해 왔던 《新青年》 잡지는 1918년 1월호부터는 문장을 완전히 白話體로 바꾸었다. 1917년 발표된 문장들 중에는 아직 文言의 형태가 다소 있었다. 진부한 文言의 형식을 벗고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생동하는 문학을 한다는 스스로의 주장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또한 胡適과 劉半農의 詩를 포함하여 9首의 新詩가 실렸다. 일체의 전통 형식을 타파한 새로운 시도였다. 신문학운동의 口號가 빠르게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어서 4월호에서 胡適은 그가 주장하는 신문학 건설의 근본적인 의미를 10字로 압축하였다. 즉 “國語의 文學, 文學의 國語”라는 것이었다. 그는 白話의 國語 통일을 극력 주장하였다.

나는 일찍이 中國의 2000년에 어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생명이 있는 “文言의 문학”이 없었기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일이 있다. 내 스스로 대답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2000년의 文人들이 지은 문학은 모두 죽은 것이었고, 모두가 이미 죽은 언어 문자로 지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죽은 문자로는 절대로 살아있는 문학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中國의 2000년은 단지 약간의 死文學이 있을 뿐이니, 단지 약간의 가치 없는 死文學이 있을 뿐이다. (중략) 中國이 만일 살아있는 문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白話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國語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國語의 문학을 해야 한다.”³³⁾

33) 我曾仔細研究：中國這二千年何以沒有真有價值真有生命的‘文言的文學’？我自己

그는 文言의 전통문학을 死文學으로 규정하고, 문학은 반드시 白話의 國語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바로 이어 5월의 《新青年》에는 魯迅(周樹人; 1881~1936)의 《狂人日記》가 발표되어 中國 新小說의 序幕을 열었다. 白話體의 새로운 형식도 신선했지만, 狂人의 입을 빌려 전통의 가족제도와 禮敎의 弊端을 폭로하고자 한 내용은 당시의 사회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로부터 신문학운동은 本軌道에 올라 전통의 형식은 빠르게 사라지고 신문학 작품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胡適은 新詩創作集 《嘗試集》(1920)을 출판하여 당시 10,000권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였다 한다.³⁴⁾ 劉半農 역시 《瓦釜集》(1926)과 《揚鞭集》(1926) 등의 시집이 있다. 魯迅의 소설은 현대소설의 초석을 다졌으며, 徐志摩(1897~1931)나 朱自淸(1898~1948)의 작품들도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교수들이었고, 胡適은 北京大學總長(1945~1948)까지 지냈다.

대부분 해외유학을 하였던 젊은 지식인들은 서구의 문학에서 참신함을 느꼈고 이에 대한 열기가 한참 타오르는 때였다. 이를 백화체로 옮겨 담는 모방이나 창작 모두가 당시에 신선한 작업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烈火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창작은 본래 전통의 형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그 모범을 보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의 타파가 성공을 하면서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창작이 필요하지 않았다. 특히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세워지면서 창작은 외연의 조건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아야 했다. 문학이 사상의 濾過를 거치면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충동과 모방으로 시작된 창작의 熱氣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 후로 창작은 이론과 분리되면서 대학에서의 창작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回答道: 這都因爲這二千年的文人所做的文學都是死的, 都是用已經死了的語言文字做的. 死文字決不能產出活文學. 所以中國這二千年只有些死文學, 只有些沒有價值的死文學. (中略) 中國若想有活文學, 必須用白話, 必須用國語, 必須做國語的文學.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文學運動史料選》, 70-71쪽.

34) 黃修己 著, 《中國現代文學發展史》, 54쪽.

신문학운동의 두 번째 방향은 문학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처음 鄭振鐸은 중국이 自國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없음에 대해 거의 한 맺힌 탄식을 하였다.

文賦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학의 연구는 아예 연구의 바른 궤도에 올라와 본 일이 없다. (中略) 중세기의 문학을 논하거나 또는 어느 어느 시대를 논하는 체계적인 저작을 본 일도 없다. 詞나 詩 또는 小說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있는 그대로 연구한 작품도 본 일이 없다. 全歷史를 통괄하는 문학사의 연구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근래 몇 권의 ‘中國文學史’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일이며, 그 또한 日本人들의 것을 베낀 것이었다.³⁵⁾

그는 전통의 문학계에 서양과 같은 학문적 연구가 없는 것에 대해 개탄을 하였다. 전통은 대체로 창작과 감상을 말한다. 가령 詩文을 말한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詩文에 능하였다. 科擧를 준비하거나 官職에 있거나 또는 자유스러운 文人이거나 모두가 詩를 쓰고 문장을 짓는 것은 당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아울러 옛 훌륭한 사람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들의 지혜를 배워 익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평가하거나 비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詩文은 스스로 배워 익혀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일 뿐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하지도 않았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특별히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鄭振鐸은 이것을 학문의 缺如로 판단을 하면서 이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한 것이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通時的인 시각에서 체계를 세워 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이 먼저 주로 이러한 학술연구에 치중

35) 自文賦起, 到了最近止, 中國文學的研究, 簡直沒有上過研究的正軌過. (中略) 沒有見過一部有系統的著作, 講到中世紀的文學的, 或講到某某時代的. 也沒有見過一部作品, 會原原本本的研究著詞或詩或小說的起原與歷史的. 至於統括全部歷史的文學史的研究, 卻大家都不會夢見. 近來雖有幾部名爲中國文學史的東西, 乃是很近代的事, 且鈔的是日本人的東西. 《中國文學論集》上, 8-9쪽.

하여 많은 연구논저를 저술하였으며, 창작보다는 오히려 외국 작품들에 대한 번역을 많이 하였다. 즉 그는 연구와 외국학문의 소개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문학계는 점차 창작보다는 외국의 문학 작품과 이론을 도입하여 自國의 문학을 연구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공산당 정권의 수립은 창작활동을 극도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文化革命이 끝나고 대학이 정상화되었을 때 대학은 창작보다는 학문적 연구가 중시되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끌어들이는 학술연구는 창작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아울러 창작에 비해 위험부담도 덜하였다는 것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2. 中國文學의 西洋化 理論

鄭振鐸은 중국문학 전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첫 인물이었다. 물론 그에 앞서 日本人과 英國人에 의해 처음으로 집필된 3권의 중국문학사가 있었고 국내에도 여러 권의 중국문학사가 있었지만, 鄭振鐸은 일찍이 이들 문학사의 부실한 내용에 대해 크게 한탄을 한 일이 있다. 때문에 그는 일찍부터 중국문학 연구에 야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그는 먼저 《文學大綱》을 출판하였다.³⁶⁾ 그는 ‘序言’에서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크게 참조한 두 권의 책이 있음을 밝혔다. 하나는 英國의 John Drinkwater(1882~1937)가 쓴 《The Outline of Literature》인데, 鄭振鐸은 이 책을 보고 자신도 이러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第一卷의 적지 않은 부분을 이 책에서 依據했고, 插圖 역시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 인용했음을 밝혔다. 다른 하나는 美國의 John Albert Macy가 쓴 《The Story of World's Literature》인데, 鄭振鐸은 이 책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했다.³⁷⁾ 鄭振鐸의 《文學大

36) 鄭振鐸 著, 《文學大綱》, 《鄭振鐸全集》10,11,12(河北: 花山文藝, 1998.11)

37) 같은 책, 2-3쪽.

綱》은 사실상 외국의 이러한 책들을 모방하고 여기에 中國의 자료를 추가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鄭振鐸은 다음으로 《插圖本中國文學史》를 저술하였다. 그는 프랑스 Hippolyte Adolphe Taine(1828~1893)의 《英國文學史》를 예로 들면서 문학사는 전체 문학의 史的 進展을 기술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문학사의 기술은 단지 문학가의 작품을 贊嘆 또는 비판만 하거나, 또는 작가의 傳記를 쓰고 評語를 붙이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文學運動의 消長에 주의하여 그 因果關係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그는 당시에 통행되던 문학사와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다. 우선 1000쪽에 달하는 분량도 가장 방대하였지만, 필요한 곳에 註를 달고, 每章의 끝에는 參考書目까지 밝혀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학술 論著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

그가 이 책의 ‘自序’를 쓴 것은 1932년 6월이었다. 古城貞吉의 《支那文學史》로부터 35년만이다. 그는 평소 중국에 그럴듯한 중국문학사 한 권 없는 것에 대해 매우 한스러워 했다. 그가 10여 년의 심혈을 기울인 이 책에 정성을 다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후로 많은 문학사 서적이 간행되었지만 대체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鄭振鐸은 결국 서양의 시각으로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그의 《文學大綱》도 그러했지만, 이 책도 《英國文學史》와 같은 중국문학사를 의도하며 집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史料選擇과 구성이 중국 본래의 문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그는 편협한 시각으로 文學史料를 선별하였다. 그는 문학이라 할 수 없는 著作들을 모두 거두어 ‘經學史’나 ‘哲學史’ 또는 學術思想史 등으로 돌려 원래의 자리로 보내야 한다면서 제외시켰는데,³⁹⁾ 이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文學」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상 분야를 걸러내고 그 대신 소설이나 戲劇 또는 민간문

38) 鄭振鐸, 《插圖本中國文學史》, 《鄭振鐸全集》8,9(河北: 花山文藝, 1998.11), 4-5쪽.

39) 같은 책, 8쪽.

학 등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야가 正統派의 작품에 오래도록 눌러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특별하게 詳述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唐詩와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간략하게 다루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중국 전통의 시각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그는 古代, 中世, 近代라는 시기 구분을 통해 詩歌와 散文(또는 韻文), 辭賦, 그리고 小說과 戲曲의 발달과정을 鳥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도 그는 강한 선입견이 작용하였다. 가령 그는 殷代에서 春秋時代까지를 문학의 원시시대로 규정하였는데, 《詩經》만큼은 당시의 유일한 「위대한 著作」으로 꼽았다.⁴⁰⁾ 「위대한 저작」이 나왔다면 이미 원시시대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만일 甲骨文이나 또는 《周易》과 같은 經書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때가 원시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詩經》이 갑자기 돌출한 위대한 저작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經學을 문학의 밖으로 떼어낸 후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오류이다. 《周易》을 생략함으로써 《詩經》의 형성과정에 대해 甲骨文과의 이어진 역사로 서술할 수 없었던 것이다.

鄭振鐸의 이러한 오류는 그 후로 나오는 문학사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보인다. 劉大杰(1904~1977)의 《中國文學發展史》(1941)는 위와는 다소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劉大杰은 《周易》이 卜辭와 《詩經》 사이의 유일한 橋梁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졸렬한 卜辭文字가 성숙한 《詩經》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적지 않은 분량의 神話를 《詩經》 앞에서 다룸으로써 자료 이용의 일관된 기준이 없이 역사의 순서를 바꾸어 버렸다. 즉 그는 ‘神話’가 가장 많이 기재된 문헌으로 《山海經》, 《楚辭》 그리고 《淮南子》 등을 꼽았는데, 이는 모두 《詩經》보다 몇 백 년 뒤의 문헌들이다. 그럼에도 그는 소위 이 ‘神話’를 《尚書》와 《詩經》보다 앞에서 다루었다. 그는 希臘의 풍부한 신화의 영향으로 ‘Iliad’나 ‘Odyssey’와 같

40) 第一階段, 從殷商到春秋時代, 這是一個原始的時代. 偉大的著作, 只有一部 《詩經》. 같은 책, 15쪽.

은 위대한 敍事詩가 있게 되었음을 예로 들면서 중국도 여기에 맞추려 한 것이다. 특히 그는 《周易》은 迷信의 각도에서 보면서 신화만큼은 이러한 시각을 배제하고, 인간이 자연환경과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훌륭한 문학 유산으로 서술하여 편향된 기준을 보였다.⁴¹⁾

같은 현상이 游國恩(1899~1978)의 《中國文學史》(1963)에서도 보인다. 그는 中國 上古文學의 발원을 아예 《淮南子》나 《山海經》의 신화에서 찾고 있으며, 이어서 《詩經》을 논술하고, 卜辭와 《周易》은 先秦의 歷史散文으로 간략히 언급한 정도이다.⁴²⁾

郭紹虞(1893~1984)는 방대한 분량의 《中國文學批評史》(上卷: 1934, 下卷: 1947)에서 中國 文學觀念의 형성과정을 세 단계의 시기 구분을 통해 파악하였다. 즉, 周-秦에서 南北朝에 이르기까지를 文學觀念의 發展期(演進期), 隋-唐에서부터 北宋에 이르기까지를 文學觀念의 復古期, 그리고 南宋-金-元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文學批評의 完成期로 본 것이다. 그는 역사를 거꾸로 본 것이다. 자신들에 이르러 문학의 학문적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오만한 시각에서 중국문학의 역사를 거꾸로 裁斷한 것이다. 그는 역사 속의 생동하는 찬란한 작품들의 세계와는 상관없는 혼자만의 관념의 체계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⁴³⁾

위에서 예시한 論著들은 현대 중국문학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책들이라 할 만하다. 文學史料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국문학을 誤導한 부작용도 크다고 보인다.

먼저 중국문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떤 편향된 특정 관념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즉 문학을 서양의 기준으로 재단하여 史料의 재구성에 치중한 것이다. 때문에 작품세계의 생명은 사라지고 단지 공허한 관념 위주의 논쟁에 머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1) 劉大杰 著, 《中國文學發展史》, 1-60쪽.

42)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1(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3.7), 14-57쪽.

43) 郭紹虞 著, 《中國文學批評史》(臺北: 盤庚出版社, 1978.9 影印), 1-20쪽.

胡適은 전통문학을 死文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이제 그 문학의 연구가 바로 무의미한 자료의 나열로 이어지면서 문학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살아있는 역사가 연구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IV. 結語 (傳統文學의 斷絶과 奇形의 文學研究)

胡適이 시도한 ‘文學改良’은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금은 거의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白話運動과 함께 추진한 ‘國語의 文學, 文學의 國語’는 현재 확실한 목표 달성을 하였다. 지금은 능히 文言으로 作文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러한 작문을 할 일이 거의 없다. 누구나 口語와 일치하는 문장을 쓰고 있으며, 작가들은 문학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쓴다.

陳獨秀가 <文學革命論>에서 제창한 혁명군의 三大主義 역시 일찌감치 이루어졌다. 즉 귀족문학은 사라지고 國民文學이 건설되었으며, 古典文學을 붕괴시켜 寫實文學을 세웠고, 그리고 山林文學을 뒤엎고 통속적인 社會文學을 세운 것이다. 이로써 전통문학의 형태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신문학운동은 이렇듯 약 100년 동안에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는 그 성과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도 되었다. 즉 신문학운동으로 비롯된 전통문학의 단절과, 그리고 현재 연구 중심의 중국문학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001년 10월 中國의 馬鞍山市에서 李白의 탄생 1300周年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평소 李白을 좋아하거나 그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약 8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고⁴⁴⁾, 그 중에서 약 60편 정도의 논문은 후에 발간된 <中國李白研究>⁴⁵⁾ 論集에 수록되었다. 이 논문집은 또한 당시

44) 대회 주최 측에서 배부한 <論文提要>에는 79편의 제요가 수록되어 있었다.

45) 中國李白研究會 編, <中國李白研究>(合肥: 黃山書社, 2002.12)

행사에 있었던 祭文이나 祝辭 등을 모두 수록하였지만, 논문집 전체에 단 한 首의 詩도 없었다.

李白 탄생의 1300주년 기념일은 사실 中國人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격스러울만한 날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詩人을 기념하는 행사에 단 한 首의 詩도 보이지 않고 다만 학술논문만 쌓인 것이다. 철저한 전통문학의 타파와 학술 연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신문학운동의 성공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이다.

첫째로, 이론과 실제의 철저한 분리이다. 가령 이론(學問으로 불리는)을 하는 학자들은 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李白의 기념일에 단 한 首의 獻詩나 祝詩도 없이 논문만 쌓였다는 것은 이론을 하는 학자들은 창작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도 같다.

이것은 전통문학과의 단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인 詩나 文章은刻苦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창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風光이 좋은 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詩想을 표현하는 것은 학자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전통문학에서는 학문뿐만 아니라 天賦의인 재능이나 인생의 經綸 등이 모두 요구되었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作詩나 作文과 같은 창작은 日常으로부터 뗄 수 없는 생활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이러한 능력이나 氣品을 나타내는 指標가 되기도 했다. 즉 학문을 하는 사람은 보다 훌륭한 창작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했으니 창작과 학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화운동의 성공으로 이제는 누구나 詩文을 흉내 낼 수 있게 되었다. 창작에 꼭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그 優劣을 가늠할 만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한 쪽에서 위대한 詩라 하는 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냇두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창작활동이 학문을 하는 학자들에게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창작은 이제 학문의 성역인 대학에서 머물 만한 위상을 잃은 것이다. 창작이 학문적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자연 이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제도권에서의 학문은 오직 논문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창작이 사라진 곳에 대신 연구 논문이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학술 논문은 하루의 행사로 끝나고 만다. 李白의 詩는 지금도 어린 아이들 입에서까지 암송되고 있다. 그러나 《中國李白研究》에 실려 있는 60여 편의 논문은 과연 누가 볼 것이며,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현재 李白의 시와 관련된 논문은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그의 詩를 계승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를 이해하기 위해 논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대학에서 碩·博士의 학위를 논문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문을 대학만의 專有物로 묶어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 밖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단지 관념의 논문으로 학문의 지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제의 乖離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렇듯 지금의 문학이 연구중심으로 바뀐 것은 서양의 모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직도 모방에 머물고 있는 문학연구는 결국 공허한 관념의 논쟁이 주류를 이루면서, 창작이 사라지고 문학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이 역사를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國의 文字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문자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문학운동 이전까지 中國文學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이 비교하기 어려운 오랜 역사를 계승해온 것이었다. 따라서 문학의 내용에 있어서 그 깊이와 풍요로움은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의 지식인들이 이를 계승하려 하지 않고 단지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그 시기와 성분에 대하여 연구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서양의 시각으로 재정리하는 것이어서 ‘哲學史’나 ‘文學史’처럼 사실상 기형적인 연구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국의 역사나 문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전통문학의 위기는 사실상 外勢의 침입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1840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아편전쟁에서 무력하게 무너

진 中國은 그로부터 약 100년 가까운 세월을 서양 列強과 日本의 무력적 간섭을 받으면서 主權을 거의 상실한 나라가 되었다.⁴⁶⁾ 1912년 中華民國 정부의 수립은 중국의 전통적인 封建國家의 형태가 서양의 근대국가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1949년의 中華人民共和國 또한 유럽의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부이다. 이로부터 전통적인 王朝政治는 끝나고 대신 新國家形態가 세워진 것이다.

外勢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했던 清國은 中國의 유구한 역사의 전통과 함께 사라지고, 新中國이 도래하여 新文化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潮流를 탄 신문학운동은 바로 大勢였으며, 이를 저지할 만한 힘은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 기술의 모방은 가능하지만 정신문화의 유산은 모방이 불가능한 것이다.

문학이 외래문화의 모방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 문학은 전통과 역사를 계승할 때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허한 관념의 서술과 논쟁의 논문이 주류를 이루는 연구 형태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古文이나 古典을 死文에서 살아있는 전통의 역사로 회복시켜야 한다. 대학은 문학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고 문학 활동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변화해가는 시대를 함께 담아내는 창작의 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으로부터 문학의 원천을 이어가고 창작으로부터 문학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본다.

46) 中國은 南京條約(1842)으로 홍콩을 英國에 割讓하는 것을 시작으로, 열강의 무력 침입에 계속 패하면서 天津條約(1858)과 北京條約(1860), 그리고 日本과의 馬關條約(1895) 등을 맺어 영토와 수많은 재물과 利權을 넘겨주어야 했다. 특히 1901년 日本을 포함한 8개 나라의 연합군에 패하여 北京을 점령당한 후 맺은 辛丑條約에서 각 나라는 北京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이는 곧 自主國의 獨立的 地位가 상실되었음을 뜻한다. 楊明玉 著, 《中國簡史》(成都: 巴蜀書社, 2002.6), 328-337쪽.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檀紀 4291年
金世煥 著, 《끝나지 않는 식민지 학문 100년》 서울: 박이정출판사, 2004.
11
黃修己 著, 《中國現代文學發展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8.11
胡適 撰, 《白話文學史》 第一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12
_____, 《文學運動史料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79.5
田中美知太郎 著, 《哲學初步》 東京: 岩波書店, 1950.9
中島力造 外 共著, 《哲學字彙》 東京: 丸善株式會社, 1912
馮友蘭, 《馮友蘭選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7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香港: 學林有限公司, 1978.1
_____,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_____, 《經書》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2
_____, 《諸子集成》 河北: 河北人民, 1992.4
古城貞吉 著, 《支那文學史》 合資會社 富山房, 明治三十.5
笹川種郎 著, 《支那文學史》 博文館, 明治三十一.8
鄭振鐸 著, 《中國文學論集》 香港: 港青出版社, 1979.8
Herbert A. Giles 著,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London:
D.Appleton and Company, 1901
鄭振鐸 著, 《鄭振鐸全集》 河北: 花山文藝, 1998.11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3.7
郭紹虞 著, 《中國文學批評史》 臺北: 盤庚出版社, 1978.9 影印
中國李白研究會 編, 《中國李白研究》 合肥: 黃山書社, 2002.12

〈中文提要〉

中國的新文化運動及新文學運動改變了中國整個文化體系。陳獨秀1915年創辦《新青年》，首倡思想的改革，促進中國社會的現代化。接著，胡適發表〈文學改良芻議〉一文，提倡文學改良的八不主張，並主張“國語的文學，文學的國語”。他們對孔孟思想及傳統文學都作出激烈的抨擊。當時接觸西方文化的許多年輕學者們都很擁護陳·胡他們的主張，新文化運動及新文學運動很順利地開展了。他們主要向西方學習，引進西方的學術，翻譯西方的作品，又受到日本的影響。日本率先開辦西式大學，最早輸入西方的文化。他們發明了‘哲學’一名詞，而且最早編成了《中國文學史》。中國把這個名詞引進使用，又開始模仿寫作文學史。馮友蘭編寫了一部《中國哲學史》，鄭振鐸編寫了一部《中國文學史》。這兩部書都以西方的視角來敘述中國文學的史料，結果成了一種很單調的史料說明書。

新文學運動到目前已近100年，胡適的八不主張和陳獨秀的三大主義早已實現了。中國早已將文言文改造成了白話的現代漢語。新文化運動的先驅者們爲了反抗舊文化，建設白話文的新文化，身兼創作與研究，既有文學作品，也有論文及成果。但文學革命成功以後，創作與研究逐漸分離，尤其是1949年中華人民共和國成立以後，創作式微，研究更與創作分家，寫論文的大多不會寫作品，研究者也都順從西方理論來宰割中國傳統文化，以至其研究時有矛盾，甚爲牽強。

其影響所及使現代學者只能寫論文，少有能與傳統大師比肩的人物。當代知識精英不重視傳統文化的繼承，只是將其作爲僵化的古董，放在櫃子裏欣賞。

本文論述了中國傳統文學危機是怎麼產生的，並分析了這種危機蘊含的歷史意味，指出了其對現代文化的影響，以及給我們的啓示，旨在提倡繼承發展優秀的中國傳統文化。

주제어 : 傳統文學, 新文學, 文章, 哲學, 研究